

## 부고

### 마리아 도로테아 수녀 (SISTER MARIA DOROTHEA)

이전 마리아 도시테아 수녀 (Sr. M. Dosithea)

이다 바스케(Ida VASKE)

ND 3962



독일,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

출 생 :	1925 년 10 월 8 일	독일, 클로펜부르 근교 할렌
서 원 :	1949 년 8 월 19 일	플하우젠
사 망 :	2015 년 2 월 26 일	훼히타 살루스
장 례 :	2015 년 3 월 3 일	훼히타 부활묘지

“나의 주님, 나의 하느님,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!”

마리아 도로테아 수녀의 삶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전부이시며 모든 것을 삶의 선으로 이끌어가셨다는 강한 확신으로 특징지어졌다. 수녀가 가진 신앙은 가족과 시골 환경에 그 기반을 둔 것이었다.

이다 바스케, 마리아 도로테아 수녀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,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대 가족 안에서 보냈다. 11 명의 남매 중 남자 형제는 두 명이었는데 그 중 하나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, 아홉 명의 누이 중 두 명이 수녀원에 입회했다. 마리아 라자리나 수녀, SND (1982 년 라인바흐에서 사망한 파울라 바스케)와 모리츠의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한 마리아 에텔군드 수녀(율리아 바스케)였다.

1947 년 8 월 20 일, 이다는 착복을 하고 마리아 도시테아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으나 후에 도로테아를 선택하였다. 첫 서원 후 마리아 도로테아 수녀는 25 년 간 다양한 기관의 주방에서 엄청난 투신으로 봉사하면서 이 시간 동안 파더본에서 가정관리인으로서의 양성을 마쳤다.

1974 년, 수녀에게 몹시 중요했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. 마리아 도로테아 수녀는 훼히타의 립프라우엔하우스와 립프라우엔슐레에서 안내실을 담당하게 되었다. 수녀는 깊은 신중함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. 교사들은 다정한 아침인사로 맞아들여졌기에 중앙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. 학생들에게도 몸이 아픈 일이 더 이상 겁먹을만한 일이 아니었다. 차와 비스킷을 곁들인 좋은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. 수녀는 정기적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오던 사제에게 환영하는 대화상대가 되어 주었으며, 노숙자들도 격려의 말과 든든한 식사를 얻을 수 있었다.

주일마다 어린이 미사에 오던 사람들도 중앙 입구를 거쳐 들어오는 것을 좋아했고, 그들의 눈길은 먼저 안내실 담당 책상을 향하곤 했다.

이 시간 동안, 수녀는 수 많은 아름다운 수예품을 만들었는데 대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선물로 사용되었다.

2002 년, 마리아 도로테아 수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랑하는 사도직에서 떠나 마리엔하인으로, 그 후 본원으로 옮겨와야 했으며 2004 년에는 살루스로 이동해왔다.

서서히 시력을 잃었던 일은 삶의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.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부터 수녀는 “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?”하고 되풀이해서 묻곤 했다.

우리는 성당에서 수녀가 “나의 주님, 나의 하느님,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. - 사랑하는 하느님, 부디 저를 부르시어 당신과 함께 있게 하소서. 그러나 당신 뜻을 받아들이겠나이다.”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.

2 월 26 일, 하느님께서서는 수녀의 깊은 갈망을 이루어주셨다 - 마리아 도로테아 수녀는 평화로이 그분을 향해 고향으로 갔던 것이다.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금 수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.